



즉시 배포용: 2017년 7월 25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농가 증류주 양조장이 뉴욕주 상표 맥주, 포도주, 사과주를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, 농가 증류주 양조장이 뉴욕주 상표 맥주, 포도주, 사과주를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이번 조치는 뉴욕주의 급성장하는 크래프트 음료 업계를 위해 공정성을 회복시키고, 위대한 뉴욕주 전역의 훌륭한 양조업자, 증류주 및 와인 및 사과주 제조업자가 새로운 수익원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.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, 뉴욕 주민들이 뉴욕주 생산 상품을 구매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.”

서명한 법안(S.2481/A.2994) 이전에는, 농가 증류주 양조장은 뉴욕주 상표 증류주만 점포 내에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. 그동안, 농가 맥주 양조장, 사과주 제조 농가, 와이너리는 뉴욕주 상표 맥주, 와인, 증류주, 사과주를 점포 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.

이 새로운 법률은 주류관리법(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) 제61조를 개정하여 농가 증류주 양조장이 뉴욕주 상표 맥주, 와인, 사과주를 점포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, 그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.

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이 법안은 크래프트 음료 업계의 최종 격차를 해소하여 농가 증류주 양조장이 점포 내 판매를 위해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새로운 법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뉴욕 주민과 관광객을 계속 끌어 들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완벽히 갖추어 뉴욕주가 선사하는 최고 수준의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”

Pat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농가 맥주 양조장, 와이너리, 사과주 제조 농가는 지역의 다양한 크래프트 음료 시음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기존 해당 권리에서 제외된 농가 증류주 양조장을 위해 공정성을 복원합니다. 법안에 사인함으로써 뉴욕주 전역의 크래프트 음료 생산 농가가 주 전반의 관광 및 지역 경제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.”

Albany Distilling Company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소유자 겸 뉴욕주 증류주 생산자 협회(**New York State Distillers Guild**) 부회장 **John Curtin**는 이렇게 말했습니다: “이번 법안 서명이 뉴욕주 크래프트 증류주 산업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. **Albany Distilling**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음실과 생산 시설을 비롯하여 이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상당한 투자를 해 왔습니다. 뉴욕주 생산 맥주, 와인, 사과주와 함께 증류주도 유리잔에 자랑스럽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뉴욕주를 국가의 크래프트 음료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**Cuomo**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큰 감사를 전합니다.”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